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갈등 해결 방식 및 친구 관계망간의 구조 모델: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비교¹⁾

고 윤 주 · 이 은 해²⁾ · Morton J. Mendelson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 McGill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관계 변인간의 관련성을 구조 방정식 모델(SEM)을 통해서 조사하고, 청년 초기, 중기, 후기의 SEM을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생(n = 142), 고등학생(n = 124), 대학생(n = 148)으로서 총 414명이었다.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측정하였고, 만족감을 예언하는 변인으로는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방식, 그리고 친구관계망의 크기가 포함되었다. 대상에게 집단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세 연령 집단을 가장 잘 예언하는 공통 SEM을 구하고 적합도를 검증한 후, 각 연령 집단의 자료를 공통 SEM에 적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친구의 지원이었으며, 친구의 지원은 공평한 관계에서 또는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높게 지각되었다. 친구관계망의 크기나 공평한 갈등해결방식은 간접적으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즉 친구의 지원을 통해 예언하였으나, 불공평한 갈등해결방식은 직접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였다. 세 연령 집단의 SEM에서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경로는 유사했으나,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경로에는 차이가 있었다.

청년기에 친구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 연구들(Sullivan, 1953; Buhrmester & Furman, 1986)을 통해서 잘 조되어 왔으나, 친구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식에

1)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42-C00192). 본 논문은 선행연구(이은해 외, 2000)의 후속 연구로서 연구 대상은 동일하나, 연구 변인과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음.

2) uhrhee@yonsei.ac.kr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예, Bigelow, Tesson, Lewko, 1996). 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이은혜, 고운주, 오원정, 2000)에서는 만족스러운 친구관계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친구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청년들의 친구 관계에서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기능과 갈등해결 방식들을 조사하였다.

청년기의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예언하는 변인들을 친구의 지원 기능과 갈등 해결 방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년기 초기에는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 중기에는 정서적 지원이, 후기에는 도구적 지원이 각각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들이었다. 둘째, 청년기 초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식이, 중기에는 양보와 같은 이타적인 방식이, 후기에는 공평한 방식이 친구의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들이었다(이은혜 외, 2000). 이러한 결과는 만족스러운 친구 관계가 청년기 초기, 중기, 후기에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어떤 한 관계에서의 질적인 측면은 보다 넓은 관계의 맥락인 관계망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Adams & Blieszner, 1994). 따라서 청년기의 친구 관계에서 발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 이외에 구조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변인들간의 상호관련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친구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과 갈등해결 방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지, 친구관계망의 특징이 친구

의 지원 기능과 친구에 대한 만족감간의 관계를 어떠한 형태로 증재하는지,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이 친구관계망의 특징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친구의 만족감을 예언하는지 등의 다양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 친구 관계망의 특징,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한 구조 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이하 SEM)을 통해서 관련 변인들간의 상호관계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SEM을 사용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면, 종속변인에 대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낮은 변인들의 공변량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회귀 분석은 한번에 하나의 종속 변인에 대한 예언변인을 찾는데 그치지만, SEM은 둘 이상의 종속 변인의 예언변인들 및 그들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청년기 초기, 중기, 후기의 모델이 서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으므로(Bradburn, 1969),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 친구 관계망의 특징은 어떠한 경로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가? 둘째, 같은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가? 마지막으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들간의 관계 구조가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으로써 겪게되

는 갈등, 긴장, 실망 등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갖고 싶어한다(Rook, 1998). 친구는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이며, 친구로부터 얻는 사회정서적 지원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다(Weiss, 1974; Mendelson & Kay, 인쇄중). 따라서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이 많을수록 긍정적 감정은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친구에 대한 거리감 및 서운한 감정 등의 부정적 감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La Gaipa(1990)는, 지원적인 관계이지만 관계가 의존적이거나 불공평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친구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지원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Buunk와 Prins (1998)는 네덜란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Walster 등(1978)의 평등 이론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친구와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수록 외로움이 증가했는데, 자신이 지원을 덜 받았을 때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을 때 외로움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La Gaipa(1990)의 주장대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자존감을 감소시키거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친구의 지원과 친구에 대한 감정의 관계는 친구관계의 공평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의 상호평등성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갈등 해결 방식을 가장 포괄적으로 분류하면(De Viliert, 1997), '회피', '타협', '협력', '지배', '양보' 등의 다섯 가지

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타협'과 '협력'은 서로의 관심사를 적절히 타협하거나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평한 방식이다. 반면에, '지배'나 '양보'는 자신 또는 친구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불공평한 방식이다. 다섯 가지 갈등 해결 방식과 친구의 선호와의 관계를 터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Tezer(199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력'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게 평가되었으며, '지배'의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타협'이나 '협력'을 주로 사용하는 친구관계는 '지배'나 '양보'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보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고 부정적 감정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친구의 지원과 친구에 대한 감정을 중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관계의 질적인 측면은 관계망의 구조적인 측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Adams와 Bliessner(1994)는 주장한다. 두 가지 측면간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에서 '관계망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이은혜 & 고윤주, 1999). 우선, 관계망이 클수록 얻어지는 지원의 양도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관계망이 커지면 관계망의 구성원들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 또는 갈등 가능성의 증가 등으로 손실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관계망의 크기와 지각되는 지원의 양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을 수 있다(Laireiter & Lettner, 1993). 다른 한편, 친구의 수가 많으면 적은 경우보다 한 친구에게 기대하는 지원의 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각되는 지원의 양은 친구의 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종합해보면, 친구의 수와 친구로부터 받는 지원의 양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친구가 적은 경우보다는 친구가 많은 경우 한 친구에 대한 의존이나 기대 정도가 감소할 것이므로 실제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집단간 갈등과 관계망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있으나(예, LaBianca, Brass, & Gray, 1998), 개인적인 차원에서 갈등해결 방식과 '관계망의 크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두 변인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적 능력과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들(Erwin, 1998)을 참고하면,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친구가 많고, 갈등해결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갈등해결 방식이 미성숙한 아동은 친구들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지배'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청년들은 친구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나, '협력'이나 '타협'과 같은 공평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보다 친한 친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된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첫째, 친구로부터 얻는 지원이 많을수록, 친구와 공평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그리고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친구의 지원이 적을수록, 친구와의 갈등을 불공평하게 해결할수록, 그리고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 그리고 친구의 관계망의 크기간에 상호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기초로

하여, 변인들간의 관련 구조가 청년기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SEM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선행 연구(이은혜 외, 2000)와 같은 대상이다. 중학교 2학년 142명(남 73, 여 69)과 고등학교 2학년 124명(남 57, 여 67), 그리고 대학생 148명(남 71, 여 77)으로 총 414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중학생 13.8세, 고등학생 16.8세, 대학생에서 남학생은 군복무 관계로 22.5세, 여학생은 20.5세였다.

도 구. 본 연구의 도구는 다음의 네 가지 변인을 포함한 질문지로서 처음 세 가지 변인은 선행 연구(이은혜 외, 2000)와 동일하나, 네 번째 변인인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본 연구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1)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Mendelson과 Aboud (1999)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친구에 대한 애정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Respondent's Affection)편에서 애정을 측정하는 문항과 만족감을 측정하는 문항 각각 4 개씩 8 문항을 선정하여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8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95였다.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Mendelson (1995)이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부정적 감정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Negative Feelings)편에서 친구와의 갈등, 상대적 무능감, 관계의 소원함 등과 관

련된 14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변인에 대한 14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90이었다.

2) 친구의 지원: Mendelson과 Aboud (1999)의 McGill 친구 관계 질문지-친구의 기능(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Friend's Functions)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여섯 가지 친구의 지원 기능(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인정, 신뢰, 정서적 안정)에 대해 각각 5 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30문항 전체의 평균 점수를 친구에 대한 지원 점수로 사용하였다. 30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95였다.

3) 갈등해결방식: Mendelson, Goldbaum, 그리고 Semeniuk (1995)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 - 갈등해결 방식(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Conflict Resolution Styles)를 사용하였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4 가지 방식('회피', '지배', '양보', '협력과 절충')에 대해서 각 4 문항씩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가지 하위영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70에서 .77로 나타났다.

4) 친구 관계망의 크기: 본 연구자들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친구를 20명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 만큼 기록한 후, 친구 각각에 대해서 친밀한 정도(아주 친한 친구, 친한 친구, 보통 친구)를 표기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적 친구의 수에 있었으므로, 위의 범주 중에서 아주 친한 친구의 수를 친구관계망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포함한 설문조사는 중, 고, 대학생 모두 수업시간에 담당 교사(수)의 협조를 얻어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친구 관계망 질문지에 응답한 다음, 이 질문지에서 아주 친한 친구로 분류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친구를 대상으로, 친구에 대한 감정,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아주 친한 친구로 분류된 친구들의 수로 산출하였고, 나머지 변인들은 관련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각 변인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각 집단별로 SEM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 변인들의 집단별 차이와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SPSS/pc+ 10.0을 이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령 집단 별 SEM은 AMOS 3.61(SEM with maximum likelihood, Arbuckle, 1995)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SEM의 적합도는 χ^2 , GFI(Goodness of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점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는데, χ^2 , GFI는 '절대적인 적합도(absolute fit)' 지수이며, IFI, CFI는 '증가하는 적합도(incremental fit)' 지수로서 (Hoyle & Panter, 1995),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상적인 지수로 알려져 있다(Gerbing & Anderson, 1993; Hoyle & Panter, 1995). χ^2 의 이상적인 수치는 0이며, χ^2 값이 증가할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GFI, IFI, CFI는 .90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은 모델의 적합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절차와 자료 분석 방법. 위의 질문지들을

결 과

각 연령 집단 별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SEM을 분석하기 전에,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 친구의 지원, 네 가지 갈등해결 방식 그리고 친구 관계망 크기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와 성차를 점검하였다. 친구에 대한 감정 중에서 긍정적 감정($F(2, 401) = 9.01, p = .00$), 친구의 지원($F(2, 401) = 24.28, p = .00$), 갈등해결 방식 중에서 '협력'($F(2, 401) = 6.73, p = .00$), 아주 친한 친구의 수($F(2, 401) = 3.47, p = .03$)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친구의 지원($F(1, 401) = 7.24, p = .01$)은 여학생들에게서, 갈등해결 방식 중 '지배'($F(1, 401) = 5.36, p = .02$)는 남학생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차로 인해 변인들간의 관계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차를 통제한 후, 변인들간의 상호관계를 산출하여(부록1 참조) SEM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1.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공통 SEM

각 연령 집단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 연령 집단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SEM을 산출하였다(그림 1 참조). 공통 SEM은 가능한 모든 변인들간의 관계 중에서 유의한 관계만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갈등 해결 방법 중에서 '회피'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므로 제외되었고 나머지 변인들간의 관계가 나타나있다. 공통 SEM의 적합도를 구했을 때, $\chi^2 = 21.07$ ($df = 21, p = .45$), GFI =

.99, IFI = 1.00, CFI = 1.00으로 상당히 우수했다.

구체적으로 공통 SEM을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직접 예언하는 변인은 '친구의 지원'이었다. 반면에, 부정적 감정을 직접 예언하는 변인은 '친구의 지원'과 '지배' 그리고 '양보'였다. 친구의 지원이 많을수록 긍정적 감정은 높았고, 친구의 지원이 적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높았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은 '지배' 및 '양보'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즉,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 하거나 양보하는 것과 같이 불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할 때 부정적 감정이 높았다.

한편, '협력'과 '관계망의 크기'는 간접적으로 친구에 대한 감정을 예언하였는데, 친구와의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할수록 그리고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두 변인이 친구에 대한 감정과 간접적으로만 관련된다는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어느 정도 예외적인 결과로, '지배'나 '양보'와 같은 불공평한 갈등해결 방식도 '친구의 지원' 및 '친구 관계망의 크기'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공통 SEM에 나타난 결과들을 정리하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이 많을수록 높았고,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공평하지 못할 때 높았다. 한편, 공평한 그리고 불공평한 갈등해결 방식 모두와 '관계망의 크기'는 친구의 지원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관계망의 크기'는 간접적으로 친구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림 1. 공통 S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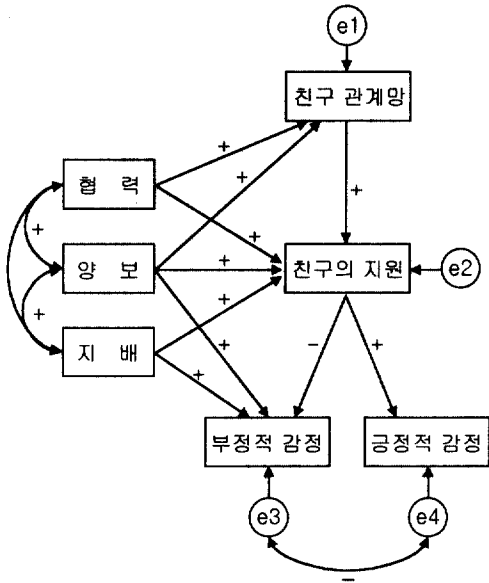


그림 2. 중학생 친구 관계 S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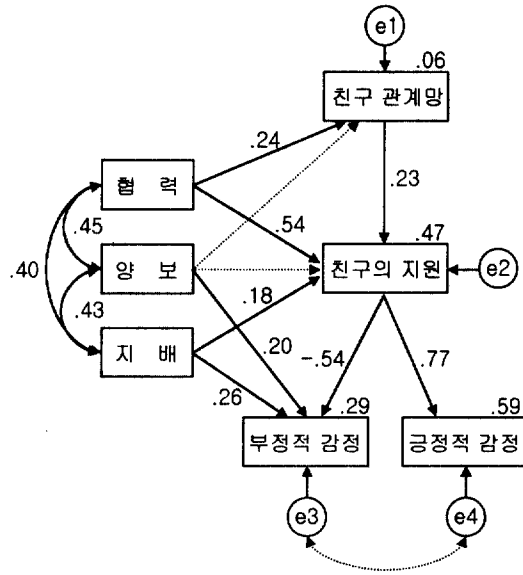


그림 3. 고등학생 친구 관계 S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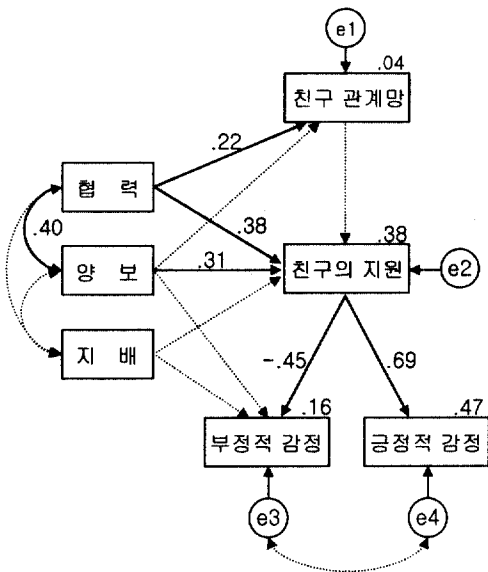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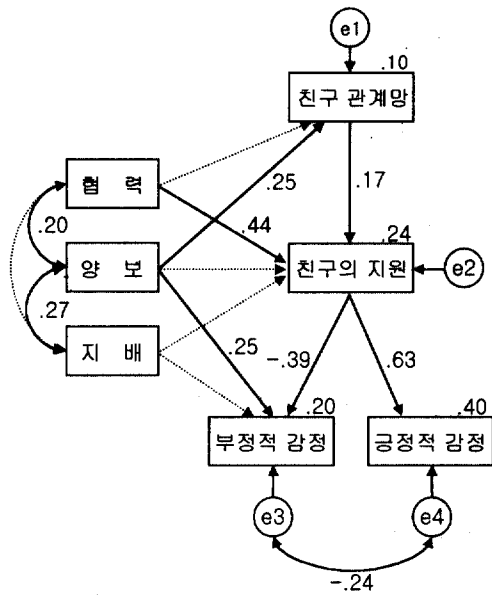


그림 4. 대학생 친구 관계 SEM



공통 SEM에서 몇몇 변인들이 유의하게 공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갈등해결 방식들 그리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오류(error) 변인들이 유의하게 공변하고 있었다. 오류 변인들이 공변하는 것은 각 변인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공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측정도구가 같을 때 나타나기도 하며, 변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갈등해결 방식들은 한 도구로 측정되었으므로 두 가지 설명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각 연령 집단 별 SEM을 만들었을 때, 세 변인이 모두 공변하지는 않았으므로 전자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인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서로 다른 도구로 측정되었으므로 두 변인간의 부적의 관계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중학생 집단의 SEM

공통 SEM에 중학생의 자료를 적용한 결과가 그림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공통SEM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갈등해결 방식 중에서 ‘양보’가 ‘친구의 지원’이나 ‘관계망의 크기’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오류 변인간의 공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친구의 지원’에 의해서, 그리고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친구의 지원’과 ‘양보’ 및 ‘지배’와 같은 불공평한 갈등해결 방식에 의해서 예언된 점은 공통 SEM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친구에 대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친구의 지원’은 ‘지배’, ‘협력’, 그리고 ‘관계망의 크기’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또는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할 때, 그리고 친구의 수가 많을 때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였다.

모델에 포함된 세 가지 갈등해결 방식들이 서로 공변하였는데, 이는 갈등 해결 방식이 아직 분화되어 사용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59%, 부정적 감정은 29%, 친구의 지원은 47%,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6%가 중학생 SEM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3. 고등학생 집단의 SEM

공통 SEM에 고등학생의 자료를 적용한 결과가 그림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공통SEM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갈등 해결 방식 중에서 ‘양보’와 ‘지배’가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였고, ‘지배’와 ‘친구의 지원’간의 관계, ‘양보’와 ‘친구 관계망’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관계망과 친구의 지원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협력’과 ‘양보’와의 공변을 제외한 나머지 갈등해결 방식간에 존재했던 공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오류 변인도 공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에 의해서만 예언되었고, ‘친구의 지원’은 ‘양보’ 또는 ‘협력’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높았다. 즉, 친구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협력’과 ‘관계망의 크기’간의 관계는 유의하였으나, ‘관계망의 크기’가 ‘친구의 지원’을 예언하지는 못하였다. 즉,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할수록 아주 가까운 친구들

을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으나, 친구가 많다고 해서 가장 친한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협력'과 '양보'와 의 공변 현상이 유의한 것은 협력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고등학생들이 양보의 방법도 자주 사용하였음을 나타낸다. 즉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때때로 친구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배'는 이 두 변인과 공변하지 않았다.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47%, 부정적 감정은 16%, 친구의 지원은 38%, 친구관계망은 4%가 설명되었다.

4. 대학생 집단의 SEM

공통 SEM에 대학생의 자료를 적용한 결과가 그림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공통SEM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불공평한 갈등 해결 방식 중에서 '양보'에 의해서는 예언되었으나, '지배'는 유의한 예언 변인이 아니었다. '친구의 지원'과 불공평한 갈등해결 방식들과는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관계망의 크기'와 '협력'의 관계도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부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과 '양보'에 의해서 예언되었다. 즉, 친구의 지원은 긍정적 감정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원이 적거나 자신이 양보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높았다. '친구의 지원'은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할수록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높게 지각되었다. '양보'는 '협력' 그리고 '지배'와 각각 공변하였으나, '협력'과 '지배'는 공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보를 자주하는 대학생들

이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양보'나 '협력'을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 집단과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양보'나 '지배'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집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부적으로 공변하였는데, 이는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40%, 부정적 감정은 20%, 친구의 지원은 24%,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10%가 설명되었다.

5. 세 연령 집단의 SEM 비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집단의 SEM은 부분적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세 가지 SEM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친구의 지원'이었다. 친구의 지원이 많을수록 긍정적 감정은 증가하였고, 친구의 지원이 적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였다. 고등학생 집단이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부정적 감정은 불공평한 갈등 해결 방식에 의해서도 예언되고 있었으며, 친구의 지원은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할수록, 그리고 관계망이 클수록 높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관계의 공평성과 '관계망의 크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예언되고 있었다.

다음에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변인들이 집단마다 달랐다.

중학생은 '지배'나 '양보'의 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대학생은 '양보'를 많이 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에게서는 불공평한 관계가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없었다. 둘째, '지배'는 중학생 집단의 SEM에서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SEM에서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즉, 갈등해결에서 '지배' 전략이 청년기 중기 이후부터는 친구에 대한 감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셋째, 관계망의 크기를 예언하는데 있어서, 중, 고등학생 집단의 SEM에서는 '협력'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으나, 대학생 집단의 SEM에서는 '양보'가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다. 즉, 청년기 초기와 중기에는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이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후기에는 친구를 배려하는 학생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넷째, 관계망이 클수록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고등학생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SEM에서 개별 관계의 차이들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EM의 전반적인 구조적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SEM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구조적 모습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 집단에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은 친구의 지원이다. 그리고 친구관계의 공평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고 또 아주 친한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소 성숙하지 못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친구가 자신의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또한 '협력', '양보', '지배'가 서로 .40에서 .45정도로 공변하고 있는 점은 갈등해결 방식에 내재된 차이를 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은 친구의 지원이었다. 그리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고 또 아주 친한 친구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점도 중학생들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학생들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친구의 관심사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즉 양보로 갈등을 해결하는 고등학생들이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협력'과 '양보'사이의 공변이 .40으로 유의한 것은 공평한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고등학생들이 양보도 자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양보'가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시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이타적인 단계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 집단에서도 역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은 친구의 지원이었다. 그리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친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던 점은 이전 단계와 같지만,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할수록 아주 친한 친구가 많은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양보를 할수록 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갈등해결 방식들간의 공변하는 정도는 이전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양보를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공평한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도 있었고, 양보를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지배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보를 많이 하는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전 단계와 다른 점은 대학생들은 친구에게 양보를 할 때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는 대학생들이 아주 친한 친구를 많이 얻는다는 점이다.

논 의

청년기에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밝혀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변인들을 청년기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조사하고 발달적 차이를 점검하였다.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고 부정적 감정은 낮을 때 극대화될 것(Bradburn, 1969)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방식, 친구 관계망의 크기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예언하는지 살펴보았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두 가지 감정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서로 독립적인 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radburn, 1969; Diener and Emmons, 1985).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지만 약한 부적 상관(-.22)을 보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서로 유의한 상관 없이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기 보다 독립적인 두 개의 구인으로 간주하고 다음의 논

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친구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예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원이라는 주장(Weiss, 1974)을 지지해 줄 뿐 아니라, 특히 청년기에 친한 친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La Gaipa(1990)는 대인관계에서 주고 받는 지원이 관계의 공평성 또는 두 사람이 처한 지위에 따라 긍정적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청년기 초기, 중기, 후기의 모델 모두에서 불공평한 관계가 긍정적 감정을 낮출 것이라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협력’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즉, 친구와의 관계가 공평할수록 친구에 대한 지원을 높게 지각한 점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평등한 관계에서 욕구가 충족될 때 친구의 지원을 더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은 하지만, 불평등한 관계에서 욕구를 충족할 때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낮아질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Buunk와 Prins(1998)의 연구에서, 친구에게 자신이 해주는 것보다 친구로부터 받는 지원이 더 많았다고 지각될 때 외로움이 높았다. 이 연구 결과 역시 불평등한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지해 주지만, 불공평한 관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긍정적 감정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는 못한다.

긍정적 감정을 예언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 ‘친구의 지원’을 예언하는 변인들이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협력’과 ‘지배’ 그리고 ‘관계망의

크기'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협력'과 '양보'가, 대학생의 경우에는 '협력'과 '관계망의 크기'가 친구의 지원을 정적으로 예언하였고,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다.

친구와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갈등 해결 자체에서 욕구 충족 및 친구의 지원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자신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함께 무엇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 서로를 돕고 있다는 느낌, 서로의 생각을 알기 위해 필요한 친밀한 대화, 서로를 인정해주는 태도, 서로에 대한 신뢰, 또는 정서적인 위로나 격려의 과정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불공평한 갈등 해결 방식도 친구의 지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청년 초기와 중기에 사회인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함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Rahim과 동료들(Rahim, Buntzman, & White, 1999)은 도덕성 발달 정도와 갈등 해결 방식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전 인습적 단계의 도덕적 사고를 하는 대학생들은 인습적이거나 후 인습적 단계의 대학생들보다 갈등해결 방식으로 '지배'를 많이 사용하였고, 후 인습적 단계의 대학생들은 더 낮은 단계의 대학생들보다 '협력'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덕 발달 단계에 따라 선호하는 갈등해결 방식이 다름을 알려준다. 특히, 청년기 초기에, '지배'를 많이 할수록 '친구의 지원'에 대한 지각이 높았던 점은 Rahim과 동료들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양보'와 '친구의 지원'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인데, 청년기 중기에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의존적이고 친밀해지기 때문(이은혜 외, 2000)이 아닌가 생각된다. Medvene, Teal, 그

리고 Slavich(200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we-ness)'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리고 상호의존성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관계의 공평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양보하면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은 미래에 받게 될 것에 대한 저축이 될 수 있다(Walster et al., 1978). 자발적인 양보는 서로의 관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서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관계망의 크기'와 '친구의 지원'간의 관계에는 조금 다른 심리적 과정이 개입될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아주 친한 친구, 즉 아주 가깝고 지원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한 친구에게만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친구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다.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기대가 높은 경우보다 평가의 결과는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두 변인의 정적인 관계가 고등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이 시기에 친구에 대한 상호 의존도가 아주 높다면, 그리고 가장 친한 한 친구와의 관계가 다른 친구와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해진다면, 다른 친구가 있더라도 그 친구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추측만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들을 정리하면, 친구로부터 얻는 지원이 많을수록, 친구와 공평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수록, 그리고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증가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즉, 친구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예언하였고, 공평한 갈등해결 방식과 관계망의 크기가

친구의 지원을 예언해 줌으로써 긍정적 감정을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다. 예외적인 결과로서, 중학생 집단에서는 지배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양보가 친구의 지원을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둘째,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도 친구의 지원이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은 '친구와의 갈등', '상대적 무능감', 그리고 '관계의 소원함'을 의미한다. 친구의 지원이 적은 경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만스러운 감정도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열등감, 또는 친구에 대한 거리감 등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의 경우와는 달리, 갈등해결 방식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예언되고 있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친구에게는 동등한 친구에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친밀함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또는 자기가 양보해야만 하는 친구에게는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길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예외적인 집단이었다. '지배'는 고등학교 시기부터 예언변인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지만, '양보'도 역시 부정적 감정과 관련되지는 않았다. 결과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시기의 양보는 불공평한 갈등 해결 방식이 아니라 친구를 배려하는 방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중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양보'는 '협력' 뿐 아니라 '지배'와도 공변하였으므로, '양보'의 의미가 배려일수도 있고, 불공평한 관계의 증거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양보'가 '협력'하고만 공변했고, '지배'와는 공변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청년기 중기의 긴밀한 동성 친구 관계의 특징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이 친구관계를 중학생이나 대학생과 다른 모습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친구 관계망의 크기는 친구의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부정적 감정은 친구의 지원이 적을수록, 갈등을 불공평하게 해결할수록, 또는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대체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간접적인 예언 가능성은 미리 가설로 설정하지 못한 결과였다.

세 연령 집단의 SEM이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가설은 미리 설정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변인들간의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친구에 대한 만족감 또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지는 청년기 동안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세 집단의 SEM 모두에서 '양보'가 '협력'과 공변한 점이다. 캐나다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와의 갈등 해결 방식을 조사한 Koh, Mendelson, 그리고 Rhee(인쇄중)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보'는 '지배'나 '회피'와 공변했지만, '협력'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즉, 캐나다 대학생들에게 양보는 불공평하며, 수동적인 갈등 해결 방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공정하고 성숙한 갈등 해결 방식인 '협력'과 불공평한 방식인 '양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인간 관계에서 공평함보다는 화합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문화의 특징(Kim, 1997)을 반영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구조 안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구의 지원'이 친구에 대한 감정을 예언하는 정도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었다. 친구의 지원과 긍정적 감정이 관련된 정도가 .77(중학생) → .69(고등학생) → .63(대학생)으로 감소하였고, 부정적 감정과의 관련 정도도 -.54(중학생) → -.45(고등학생) → -.39(대학생)로 감소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함께 고려하면, 친구의 지원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능력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친한 동성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둘 만의 관계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른 변수로는 이성 친구와 같은 다른 지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확신 등과 같은 내적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rikson에 의하면, 청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의 발달 정도는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raig, 1999).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그대로 발달적인 차이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정 또는 선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초기,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세 연령 집단을 우리사회에서 동일한 조건과 지위를 가진 집단으로 가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종단적인 연구나, 반복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간의 차

이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발달적 변화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SEM을 이용한 분석의 장점은 다양한 관련 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구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친구관계에서 중요시되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설명 변량의 크기를 참고하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또 다른 변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포함되지 못한 관련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관계를 지속해 온 기간도 관련 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친구는 학교를 포함한 사회 생활 전반에서의 적응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서동인, 1992),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일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김은정, 이정운, 이기학, 한종철, 1995; 김재은, 이은순, 강순화, 1998).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해가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청년기 초기, 중기, 후기 동안에 친구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지각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친구의 지원이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지원은 공평한 관계에서 또는 지원적인 친구가 많을수록 더 높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친구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욕구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충족시켜주려는 노력과 공평한 또는 상대를 배려해주는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원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친구들로 구성된 관계망을 갖게 된다면, 각 친구와의 이원적인 관계는 만족스럽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은정, 이정윤, 이기학, 한종철 (1995). 199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11, 80-197.
- 김재은, 이은순, 강순화(1998).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9집. 서울: 집문당.
- 서동인(1992).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 5-17.
- 이은혜, 고윤주 (1999).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 연구, 37(3), 201-220.
-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Adams, G. R., & Blieszner, R. (1994).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for friendship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163-184.
- Arbuckle, J. L. (1995). *AMOS users guide*. Chicago: Smallwaters.
- Bigelow, B. J., Tesson, G., & Lewko, J. H. (1996). *Learning the rules: The anatomy of children's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uhrmester, D., & Furman, W. (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 A Neo-Sulliv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 B.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pp. 41-62). New York: Springer.
- Buunk, B. P., & Prins, K. S. (1998). Loneliness, exchange orientation, and reciprocity in friendship. *Personal Relationships*, 5, 1-14.
- Craig, G. C. (1999). *Human Develop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De Vliert, E. V. (1997). *Complex interpersonal conflict behaviour: Theoretical frontiers*.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 Diener, E., & Emmons, R. A. (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93). Monte Carlo evaluations of goodness-of-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40-65). Newbury Park: Sage.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158-176). Thousand Oaks: Sage.
- Kim, U. (1997). Asian collectivism: An indigenous perspective. In H. S. R. Kao, & D. Sinha (Eds.). *Asian Perspectives*

- on *Psychology*. London: Sage.
- Koh, Y.-J., Mendelson, M. J., & Rhee, U. (in press). Friendship quality and friendship networks in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 La Gaipa, J. J. (1990). The negative effects of informal support systems. In S. Duck (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pp. 122-139). London: Sage.
- LaBianca, G., Brass, D. J., & Gray, B. (1998). Social networks and perceptions of intergroup conflict: The role of negative relationships and third part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 55-67
- Laireiter, A., & Lettner, K. (1993). Belastende Aspekte sozialer Netzwerke und sozialer Unterstuetzung: Ein Ueberblick ueber den Phaenomenbereich und die Methodik. In A. Laireiter (Hrsg.). *Soziales Netzwerk und soziale Unterstuetzung: Konzepte, Methoden und Befunde*(pp. 101-111). Bern: Verlag Hans Huber.
- Medvene, L. J., Teal, C. R. & Slavich, S. (2000). Including the other in self: Implications for judgments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19, 396-419.
- Mendelson, M. J. (1995). *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 - Negative Feelings*. Unpublished measu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Mendelson, M. J., Goldbaum, S., & Semeniuk, J. (1995). *Handling Disagreements Questionnaire*. Unpublished measu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endelson, M. J., & Kay, A. C. (in press). Positive feelings in friendship: Does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 matter?
- Rahim, M. A., Buntzman, G. F., & White, D. (1999). An empirical study of the stages of mor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gement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0, 154-171.
- Rook, K. S. (1998). Investig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a lens darkly? In B. H. Spitzberg, & W. R. Cupach (Eds.). *The dark side of close relationships*(pp. 369-393). Mahwah, NJ: Erlbaum.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ezer, E. (1999). The functionality of conflict behaviors and the popularity of those who engage in them. *Adolescence* 34, 409-415.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and Bacon.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o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부록 1.
성을 통제한 부분상관표

대상	변인 이름	1	2	3	4	5	6	7	8
대학생	1. 긍정적 감정	1.00							
	2. 부정적 감정	-.39	1.00						
	3. 친구의 지원	.64	-.35	1.00					
	4. 회피	-.06	.18	-.10	1.00				
	5. 협력	.38	-.14	.47	.10	1.00			
	6. 지배	.10	.12	.08	.27	.14	1.00		
	7. 양보	.07	.23	.12	.55	.18	.27	1.00	
	8. 아주 친한 친구의 수	.24	-.06	.24	.22	.18	.16	.28	1.00
고등학생	1. 긍정적 감정	1.00							
	2. 부정적 감정	-.29	1.00						
	3. 친구의 지원	.69	-.36	1.00					
	4. 회피	.14	-.03	.22	1.00				
	5. 협력	.37	-.27	.54	.29	1.00			
	6. 지배	.09	.06	.14	.11	.16	1.00		
	7. 양보	.41	-.04	.46	.36	.40	.10	1.00	
	8. 아주 친한 친구의 수	.15	-.04	.18	.04	.18	.03	-.02	1.00
중학생	1. 긍정적 감정	1.00							
	2. 부정적 감정	-.34	1.00						
	3. 친구의 지원	.77	-.39	1.00					
	4. 회피	.13	.03	.25	1.00				
	5. 협력	.42	-.18	.63	.45	1.00			
	6. 지배	.31	.14	.40	.37	.40	1.00		
	7. 양보	.16	.19	.25	.46	.45	.43	1.00	
	8. 아주 친한 친구의 수	.40	-.13	.39	.07	.25	.18	.12	1.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the Prediction of Friendship Satisfaction in Early-, Mid-, and Late-Adolescence

Yun-Joo Koh · Unhai Rhee · Morton J. Mendels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McGill University

Predictors of friendship satisfaction were examin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in early-, mid-, and late-adolescence. Friendship functions, conflict-resolution styles, and friendship network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as predictor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and friendship network questionnaire were completed by 142 middle-school, 124 high-school, and 148 university students. Friendship satisfaction was assessed by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the best same-sex friend. In all age groups, the essential predictor for friendship satisfaction was friend's support, which was perceived high either as egalitarian conflict-resolution styles were used or with a large friendship network. Network size and egalitarian conflict-resolution indirectly, via friend's support, predicted positive feelings toward the best friend, while asymmetric conflict-resolution directly predicted negative feelings. There wer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in SEM among three age groups. Differences were found in conflict-resolution styles predicting negative feelings and SEM of high school students compared to other groups.